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동시에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특히, 코로나19로 한때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지자 대기 질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야생 동물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그간 인간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동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설문 결과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생활 속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줄이기 과대 포장 제품 구매하지 않기 등과 같이 소비자 개인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기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개인이 늘어났다. 그러나,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의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옷을 만들기 위해 옷감을 생산하는 것부터 옷을 공정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계 곳곳의 상점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 패션 산업은 인간의 탄소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고 폐수의 20%를 차지한다. 또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강을 오염시킨다.

우리가 구매하는 옷은 구체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옷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천연 섬유 중 가장 대표적인 면 직물은 2015년 유럽 패션 시장 옷의 43%에 쓰이는 등 흔히 사용되는 소재다. 그런데 면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토지와 물, 비료 그리고 살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천연 소재인 실크도 옷에 자주 사용되는 소재인데 실크 재배 과정 역시 천연 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에 치명적 영향을 가한다.

옷을 위한 천연 섬유를 재배하고 나면 이 섬유를 실로 짜고 천으로 만든 후 염색을 하거나 옷감을 튼튼히 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 마지막 과정을 거치면 옷이 완성된다. 이 모든 과정은 에너지가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으로 방대한 양의 물과 1,9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사용된다고 한다. 옷을 만드는 전체 과정 가운데 특히 옷감의 염색 과정은 천 1kg당 150 리터만큼의 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 과정에서 오염된 물이 대량 발생한다. 그런데 대부분 패션 업계가 인건비가 싼 저소득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미약한 환경 규제로 오염수가 정수처리 없이 그대로 방출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

옷을 만드는 과정 자체로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패스트 패션 소비문화로 매년 패션 업계가 85%의 옷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패스트 패션을 부추기는 패션 업계는 수많은 유행을 만들어 내고 1년에 심지어는 1년에 약 20번의 컬렉션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국에서 '플렉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는 젊은 층의 소비 문화가 형성되어 패스트 패션을 소비하는 영상이 수만 개가 올라오며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는 비교적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 문제에 관한 관심과 책임 의식이 높은 젊은 층에서조차도 패션과 환경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환경 보호를 위해 패션 업계도 친환경적 소재를 활성화하고 패스트 패션을 부추기는 낭비적 생산 관행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비자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소비 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소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결국 소비자에게 있고 소비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패션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업계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패스트 패션 유행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젊은 층의 인식 변화가 더욱 요구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옷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이미 충분한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행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옷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빈티지샵을 이용해 옷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옷을 구매해야 한다면 나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옷을 구매하되 친환경적 혹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환경을

고려하는 패션 브랜드가 점차 많이 생기고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미국 유명 가수가 공동 창업주로 있어 이슈가 되었던 '바이오닉'이라는 브랜드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이용해 섬유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청바지, 재킷 등 다양한 옷을 만든다. 국내에도 플라스틱이나 폐쓰레기를 일명 업사이클링해 가방을 만드는 '플리츠 마' 등 지속 가능한 패션을 지향하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쉽게 구매한 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인지하고 소비 행태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editionblog/221453978498>

<https://www.businessinsider.com/fast-fashion-environmental-impact-pollution-emissions-waste-water-2019-10>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00310-sustainable-fashion-how-to-buy-clothes-good-for-the-dimate>

<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9/09/23/costo-moda-medio-ambient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EU Parliament Report)